

반도체 수출 ‘주춤’… 무역흑자 6개월만에 10억달러 깨져

지난달 전남광주 8억2800만달러 전년비 43.2% ↓
수출 대비 원유·화공품·철강 등 수입 증가폭 커

반도체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지난달 전남광주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40% 이상 급감하면서 6개월만에 10억달러가 깨졌다.

18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7월 전남광주 지역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5% 증가한 61억7700만달러, 수입은 44.1% 증가한 53억49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2800

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무역수지 흑자액 (14억5700만달러) 대비 43.2% 감소했으며 지난달 (18억3500만달러) 과 비교하면 무려 54.9% 감소한 수치다.

무역수지 흑자액이 10억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8억2000만달러 이후 6개월 만이다. 전남광주 무역수지는 2월

전남광주 지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7월	1~7월	6월	7월	1~7월
수출 (전년동기대비증감률)	5.170 (10.2)	33.836 (△9.4)	6.703 (40.2)	6.177 (19.5)	40.127 (18.6)
수입 (전년동기대비증감률)	3.713 (△10.0)	25.885 (△9.3)	4.868 (29.0)	5.349 (44.1)	30.771 (18.9)
무역수지	1.457	7.951	1.835	828	9.356

12억9000만달러로 올라선 이후 3월 18억1400만달러, 4월 17억6700만달러, 5월 10억9300만달러 등 6월까지 호조를 이어

왔다.

7월까지 누계기준으로는 수출은 18.6% 증가한 401억2700만달러, 수입은 18.9%

증가한 307억71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7% 늘어난 93억5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 31.5%에 달했던 누계 증가폭도 크게 둔화했다.

무역수지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수입 급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7월 수입은 석유제품(-8.0%)을 제외한 원유(65.5%), 반도체(38.3%), 철광(41.1%), 석탄(31.4%), 화공품(83.4%) 등 주력 업종 대부분이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중동(39.6%), 동남아

(31.2%), 미국(43.5%), 호주(34.6%), 중국(59.3%), 일본(114.9%) 등이 증가했다.

7월 수출은 석유제품(41.0%), 수송장비(50.9%), 화공품(14.6%), 고무타이어 및 튜브(47.7%) 등이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1.8%), 반도체(-31.1%)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가운데 동남아(3.9%), 유럽연합(75.1%), 미국(16.8%) 등은 증가했고 중국(-3.4%), 일본(-1.4%), 중남미(-18.8%) 등은 감소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포스코광양제철소, 생성형AI 기술개발 박차

경진대회 6건 채택…대상 ‘도금 품질결함 기술지원’

포스코광양제철소가 자체적으로 ‘생성형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직원들의 AI역량을 향상시키고 제철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생성형 AI 경진대회’에 올해 직원들이 출품한 57건 중 6건이 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채택된 AI기술은 ‘도금 품질결함 기술지원 에이전트’, ‘원료설비 현장 압력지수 집 에이전트’, ‘공정연계 데이터 분석용

AI에이전트’, 기가스틸 제품의 품질 고도화를 위한 ‘AI기반 공정능력 진단 시스템’, 적정제고 관리를 통한 원가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AI기반 자재분석 시스템’, 설비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설비진동 데이터 AI분석 시스템’ 등이다.

이들 AI기술은 시범 운영을 거쳐 제철공정에 도입하게 된다.

이 가운데 대상을 차지한 ‘도금 품질결함 기술지원 에이전트’ 기술은 고객사로부

터 품질 부적합 신고사항이 접수되면 AI 에이전트가 과거 도금제품 결함 데이터를 자체 학습 및 분석해 제품의 결함 원인과 개선 방안제시 등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제철소 리더(도금부)는 “품질 부적합 신고사항이 접수되면 자체학습 등을 통해 결함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즉각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술로 고객사의 불편사항에 즉시 대응하고 제품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jin@gwangnam.co.kr



농협전남본부는 18일 담양군 고서농협에서 ‘포용금융 동행창구 전남 1호점’ 개소식을 진행했다.

전남농협, 취약계층 위한 ‘포용금융 점포’ 운영

담양 고서농협 내 동행창구 전남 1호점 개소
고령자·장애인 등 맞춤형 상담·편의시설 지원

농협전남본부가 고령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포용금융 실천에 나섰다.

농협전남본부는 18일 담양군 고서농협에서 ‘포용금융 동행창구 전남 1호점’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포용금융 동행창구’는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마련

된 맞춤형 창구다. 고령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구에는 전담직원이 배치돼 예금·대출·송금 등 주요 금융업무에 대해 1대1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

확대 독서기와 음성 안내(호출) 기기, 디지털 번역기 등 전용 편의시설도

갖췄다.

이를 통해 고령층과 장애인 고객은 물론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일 전남농협본부장은 “고서농협을 시작으로 포용금융 동행창구를 전남 농촌현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고령자와 장애인 등 모든 고객이 소외되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하남농협, 농협 창립 65주년 ‘농심천심 특별상’

맞춤형 영농 지원체계 구축 등
다각적 현장 밀착형 사업 호평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농협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하남농협이 농업·농촌 발전과 조합원 권익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심천심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선교 간사 등 정부·국회 관계자와 농업인 단체장, 조합장 및 임직원 약 700명이 참석해 정부포상·창립기념표창·농심천심 특별상 수여 등이 진행됐다.

농심천심 특별상은 ‘농민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기치 아래, 묵묵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헌신을 받들고 현장 중심의 실의 지원 및 도농 상생을 선도한 최우수 사무소에 수여하는 권위의 상이다.

하남농협은 그동안 맞춤형 영농 지원체계 구축,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판로 확대, 조합원 복지 증진 등 다각적 현장 밀착형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광주



하남농협이 최근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농협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농업·농촌 발전과 조합원 권익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심천심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역 농업을 대표해 ‘범농협 사회공헌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농심천심 특별상을 받아 농업인의 실의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선도하는 농협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박상욱 하남농협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하남농협을 믿고 함께 해주신 조합원과

고객,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심천심의 초심을 잃지 않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하남농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